

손흥민의 토트넘, 7월 한국 온다

쿠팡은 올해 7월 토트넘 홋스퍼 FC가 쿠팡과 피치 인터내셔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쿠팡플레이 시리즈' 경기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토트넘이 국내에서 경기를 치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005년 이후 17년 만이다.

쿠팡은 한국 축구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토트넘과 국내 팬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피치 인터내셔널과 한국 투어 주관을 결정했다. 토트넘 구단은 쿠팡플레이가 기획한 '쿠팡플레이 시리즈' 2개 경기를 펼 계획이다.

현재 손흥민 선수와 조소현 선수가 토트넘 구단 소속이다. 두 선수는 각각 대한민국 남자축구 국가대표팀과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고 있다. 손흥민 선수는 2015년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으며 5년 연속 '아시아 최고의 축구선수'로 선정됐다.

국내에서는 코리아 스포츠, 대구 스포츠, 강원도 스포츠, 보령 스포츠 등 4개의 공식 토트넘 팬클럽이 활동 중이며 토트넘 구단은 방한 중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17년만의 방문... '쿠팡 시리즈' 2게임 치러 흥민 "동료들과 고국서 함께 뛰게 돼 흥분"



쿠팡플레이 토트넘.

뉴시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여름 토트넘 동료들과 함께 고국을 방문하게 돼 매우 흥분된다"며 "동료 선수 대부분 한국에 가보지 못했는데 대한민국 팬들의 열정과 경기 도중 스타디움을 가득 채울 응원서 열

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한 쿠팡플레이 총괄 디렉터는 "전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토트넘 구단을 피치 인터내셔널과 함께 한국

으로 초청해 국내 팬들이 토트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돼 기쁘다"라며 "토트넘 측에서 쿠팡의 초청을 받아들여준 점에 감사하며 7월 한국 투어 기간 동안 쿠팡플레이를 통해 토트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홋스퍼 구단 회장은 "프리시즌 기간 동안 해외 투어에 나서는 일은 다가오는 시즌을 준비하는데 중요하다"라며 "방한 기회를 마련해준 AIA, 피치 인터내셔널, 쿠팡 측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쿠팡플레이는 대표적인 해외파 선수인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FC), 이강인(레알 마요르카), 황의조(FC 지롱댕 드 보르도), 김민재(페네르바체 SK) 등 4명의 소속팀 경기를 디지털 생중계하는 유일한 플랫폼이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대한축구협회와 공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2025년 8월까지 국가대표팀을 후원하며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스카이에일리/뉴시스



방탄소년단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SEOUL 포스터.

빅히트뮤직

BTS, 3월 10·12·13일 서울 공연

온라인 병행... 2년5개월만에 잠실서 열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오프라인 콘서트 날짜를 확정했다.

16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3월10일과 12~13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서울(PERMISSION TO DANCE ON STAGE-SEOUL)'을 오프라인 공연과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연다.

방탄소년단이 서울에서 콘서트를 갖는 것은 2019년 10월 'BTS 월드 투어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더 파이널'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3월10일과 13일 콘서트는 오프라인 공연과 함께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이 동시에 진행된다. 3월12일 콘서트는 영화관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라이브 뷰잉'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관람 인원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탄소년단은 콘서트 준비에 돌입했다. 다만 전날 멤버 뷁이 코로나19에 확진, 일부 연습 일정 등을 조정한다.

한편에서는 깜짝 신곡 발표도 예상하고 있다.

환영 받지 못한 1위... 투명 인간 된 발리예바

올림픽 피겨 쇼트프로그램 출전해 1위 도핑스캔들에 팬 외면... 박수조차 안쳐



'도핑 파문'에도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강행한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는 은반 위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

발리예바는 15일 중국 베이징의 캐피탈 실내경기장에서 치러진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해 1위를 차지했다.

기술점수(TES) 44.51점, 예술점수(PCS) 37.65점으로 총점 82.16점을 받은 발리예바는 첫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을 실수 하기도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으로 꼽혔던 발리예바는 도핑 스캔들로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혔다. 지난해 12월

채취된 도핑 샘플에서 협심증 치료제이자 흥분제 역할을 하는 금지 약물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된 뒤 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구제로 논란 끝에 올림픽 출전 길이 열렸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을 차갑기만 하다. CAS의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대놓고 발리예바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발리예바가 메달을 따면 메달 세리머니는 물론 꽃다발 세리머니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 발리예바가 상위 24명에게 주어지는 프리스케이팅 출전권을 따면 25위를 한 선수에게도 프리스케이팅에 설 기회를 주기로 하는 등 사실상 없는 선수 취급을 했다. 현장 반응도 차가웠다. 모두가 발리예바를 주목했지만, 그의 연기에 박수를 보낸 건 러시아올림픽위원회



15일 중국 베이징캐피탈실내경기장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IOC) 카밀라 발리예바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ROC) 관계자들뿐이었다.

외신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ESPN은 "많은 사람이 그녀가 그곳에 있으면 안 된다고 느꼈음에도 발리예바는 방관 위에 섰다"고 지적했고, 1998나가노올림픽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인 타라 리핀스키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게 된다"며 금지 약물을 복용한 선수의 출전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국의 해설위원들도 발리예바의 출전에 침묵으로 응답했다. 광민정 KBS 해설위원, 이호정 SBS 해설위원은 발리예바의 프로그램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발리예바는 쇼트프로그램에 나선 30명의 올림픽 선수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환영받지 못했다. 이대로 프리스케이팅에서 또다시 1위를 차지해도 그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스포츠 로맨스...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4월 첫 방송 KBS2 새 드라마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대본 리딩 현상이 공개됐다.

4월 첫 방송 예정인 KBS2 새 드라마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는 스포츠, 운동이 전부인 박태양 선수와 운동이 직업인 박태준 선수가 배드민턴 실업팀에서 벌이는 뜨거운 스포츠 로맨스 한 판이다.

박주현은 3년 만에 다시 배드민턴 코트에 돌아온 스메시 여왕 박태양 역을 맡는다. 운동을 쉬 기간을 따라잡으려 남달라 더욱 노력하는 악바리같은 모습을 선보인다.

채종협은 운동을 그저 직업으로 생각하는 실업팀 선수 박태준 역을 맡았다. 특히 무엇이든 좋게 넘어가려는 능글맞



'너에게 가는 속도 493km' 대본 리딩 현장. 콘텐츠파버

은 성격을 보여주다가도 결정적일 때는 진지해진다.

불의의 사고로 은퇴를 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준영 역의 박지현, 팬들을 몰고 다니는 국가대표지만 자기 관리가 약점인 육정환 역의 김부준, 중요한 경기마다 사고가 겹치는 징크스의 여왕이 유민 역의 서지혜 등도 기대를 모은다.

BEYOND GOLF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